

슬관절의 후방십자인대와 내측 반월상 연골에 동시에 발생한 다발성 결절종 -1예 보고-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김영진 · 김태균 · 이한솔 · 전철홍

좌측 슬관절 동통을 주소로 내원한 프로 골프 선수로서 이학적 검사상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이었으나 슬관절 굴곡시 슬와부 동통이 저명하였고, 방사선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자기 공명 영상상 후방십자인대의 중심부에 12 mm×14 mm×22 mm가량의 경계가 분명하고 T1 강조영상에서 저신호 강도를, T2 강조영상에서 고신호 강도를 보이는 균질한 음영을 가지는 낭종형 종물을 관찰할 수 있었다. 관절경 수술 소견상 후방십자인대 중심부에 회백색의 낭종이 존재하였고, 그것을 제거 후에 내측 반월상 연골을 관찰시에 자기 공명 영상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8 mm×8 mm×10 mm 크기의 낭종이 내측 반월상 연골 후방부위에서 하나 더 존재하였다. 천자시 노란색의 점액성 액체가 채취 되었으며, 결절종 진단 하에 낭종을 제거하였다. 아직 동시에 발생된 결절종은 보고 된바가 없다. 수술 후 환자의 증상은 완전히 소실되었고, 6개월까지 추시 관찰 중으로 재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